

향토건축의 자료 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terial Survey Methods of Local Architecture in Korea

박익수*
Park, Ik-Soo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survey methods to approach a research into 'local architecture' in Korea. Local materials for architecture can be classified into local buildings, local documents, local conditions. To perform the survey research into local architecture effectively, it demands a reasonable survey method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for architecture, and we have to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survey process, the materials collecting, the materials noting and reporting. The typical survey methods of local are presented in this article.

Keywords : Local Architecture, Material Survey Methods

1. 서 론

지방, 고을로도 불리우는 郷土는 일반 민중의 삶을 통해 문화를 일구어온 터전이자, 우리 민족의 기층문화(basic culture)를 이루어온 정신적 땅이다.

그러나 근대 산업화이후 국토 개발 과정에서 향토 문화자료의 멸실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토의 고유한 문화성은 상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제 지역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문화 의식과 함께 향토문화자료를 보존하고 가치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사라져 가는 향토문화자료를 조사·연구하고, 보존·복원하려는 작업은 향토문화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규명과 가치를 발견하는 일로써, 우리의 안목으로 지방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정체성 모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한편 '향토건축'은 향토문화를 이루는 한 영역으로서 본질적으로 향토문화의 기층성, 전통성, 민중성, 토속성, 공동체성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방향 인식은 건축사 연구의 다양화

로서 뿐만 아니라, 지방 건축성 탐구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한국건축사 연구의 향후 기본 과제가 지방건축 자료의 발굴과 지역성 연구의 단편성 극복²⁾에 있다고 볼 때 향토건축자료의 체계적 분류·정리 작업은 지방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일이다.

향토건축연구는 연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로 현장조사에 입각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방법에 대한 접근문제가 선결과제인 셈이다.

향토건축조사를 위한 큰 목적은 향토민이 이루어 낸 조영활동을 사실대로 조사 기록하고 문화적 가치로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문화기술학적 기법들이 일정한 틀이 정립되지 않은 채 나름대로 익힌 개인적인 조사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의 물리적 현상과약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향토건축의 문화적 면모를 밝히는데 한계를 갖는다.

향토건축의 생성, 변화, 보존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지리학, 역사학, 민속학, 고고학 등 상호 문

*정회원, 호남대 건축·토목공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00년도 호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1) 본 용어는 토속건축 혹은 토착건축, 민속건축, 민중건축, 지방건축 등에 가까운 의미로 이해되나, 향토라는 지리적 정신적 영역을 강조하는 지방건축에 의미를 둔다.

2) 강영환, 민가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건축역사학회창립 10주년기념 학술발표대회자료집, p.25

화적 작용과 연관된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보고 다양한 향토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방법이 궁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적 문화성이 뚜렷한 향토건축연구의 방법론적 시도로서 우선 지방 건축에 있어서 향토성 탐구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전개 내용은 우선 향토건축자료들의 개체 속성에 따른 분류와 더불어 그 형식적 틀인 향토건축자료의 조사절차기법, 조사수집기법, 조사정리기법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본 고찰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의 보편적 문화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조선시대 향촌을 기본 범위로 설정하며, 건축문화 지표조사 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사방법적 틀을 고찰하기로 한다.

II. 향토건축자료

1. 향토건축자료의 의미

건축적 자료란 건축문화를 이루는 주제, 시간, 장소, 방법, 원인에 대한 제 정보들로서 주체적 성격과 시기적 성격, 지역적 성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향토건축자료는 향토라는 지역성에 바탕을 둔 전통적 건축자료로 볼 수 있지만,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 중앙성이 아닌 지방성, 왕조성이 아닌 민중성, 제도성이 아닌 생활성 등에 개념 우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향토건축자료는 일찍이 조선시기에 국가 통치나 향토 의식 고취를 위해 행정적 자료로 활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전통적 문화유산으로서 향토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정신적 자산으로 작용되어 왔다.

그러나 향토건축자료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향토사 연구에 실증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건축물 자체가 지니는 문화재적 가치로서 뿐만 아니라 민중의 생활문화를 담아내는 인류학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의 전통건축문화를 계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는 향토자료의 발굴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토문화의 보존과 발전은 향토건축자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향토

의 환경, 향토민의 생활과 의식 등이 함께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2. 향토건축자료의 분류

향토건축 자료조사에 있어서 수많은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 분류 범위가 필요하다. 대개 개체 성격적 구분, 기능적 구분, 시대적 구분, 지역 영역적 구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료 분류 중에서 현상 접근에 가장 실증적 구분인 개체 성격에 따른 분류는 크게 조영물·기록물 등 물질자료와 사회현상·자연현상·정신활동 등 비물질자료로 구분하거나, 실체자료·기록자료·상황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절에서 개체적 성격에 따른 분류를 시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체자료

향토건축에서 실체자료는 향토의 시대적 지역적 문화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물리적 造營物 그 자체로서 지상에 잔존하거나 매장되어 남아있는 1차적인 건축자료이다. 건축물 실체자료는 기능요소별, 형태요소별 성격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나, 향촌을 구성하는 건축물을 기능요소에 따라 분류하면 살림집인 주거건축물을 비롯하여 書院·鄉校·司馬齋·養士齋·書齋·講舍·書堂·祠堂·影堂·齋室 등의 교육·배향건축물, 객사·읍아 등의 관아건축물, 읍성·산성 등과 같은 성곽건축물, 역원·시장 등 교통·유통건축물, 노인당·동각·누정 등의 복지·휴식건축물, 동제당·서낭당·산신당·효자가·열녀각·충신각 등과 같은 종교·신앙·기념건축물이 주로 해당된다. 또한 형태요소는 건축구성, 건축규모, 건축재료, 건축양식 등에 따른 분류로서 향토건축의 물리적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향토건축의 실체자료는 지방민과 지방관, 개인과 공공을 위한 건축물 자료로서 향토자료조사의 중심요소가 된다.

2) 기록자료

기록자료는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관하여 기록된 제반 자료로서 2차적 건축자료이다. 향토건축의 실체적 근거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서 당대의 시대 상황에 따른 건립배경과 건립연대 및 건립자, 건축유적의 종류와 장소, 건축물의 연혁 등의 근거를 제공한다. 기록자료의 형태는 文獻物, 圖畫物, 金石

文³⁾ 등으로 구분되며, 地方史 기록자료 및 生活史 기록자료 등이 주목된다.

지방사 기록자료는 지방의 행정 연혁이나 역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문헌기록으로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사회·고적·인물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한 地理誌⁴⁾·地方誌⁵⁾·鄉土誌·關防誌⁶⁾ 등의 자료와 역사적 人物을 기록한 人物誌⁷⁾ 자료가 있다⁸⁾.

이들은 향토건축유적의 내용과 소재지 및 연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문헌기록 중에는 서원도, 향교도, 마을도, 읍성도, 관아도 등 圖畫物이 포함되는데 향토건축의 지리 상황에 따른 입지형태, 배치형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생활사 기록은 향토 기반인 종가, 촌락, 문중, 서원 등의 공동체와 사가에 관한 기록들로서 건축적 연혁과 경영, 관련 인물, 사용 기능과 풍속 등 향토건축의 생성이나 변천 자료를 제공한다. 향토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및 도화자료들은 교육·신앙자료(鄉校誌, 書院誌, 祠宇誌, 洞祭文書 등), 촌락자료(洞契, 鄉約, 門中契, 書堂契 등), 가옥자료(家座臺帳⁹⁾, 家屋文記¹⁰⁾, 重修·重建記¹¹⁾, 建築日記¹²⁾, 建築用下記¹³⁾) 등을 비롯하여 개인·가족생활자료(족보, 準戶口, 戶口單子, 明文, 分財記, 文集, 行狀, 日記 등), 造營記文자료(碑文, 上樑文, 重建記, 募緣文¹⁴⁾, 造塔記) 등을 들 수 있다¹⁵⁾. 圖畫자료는 가옥의 배치 혹은 평면·입면 그림인 家圖가 주목된다.

이러한 향토기록자료는 어떤 형태로 남아 있으며,

- 3) 향토자료 수집형태는 주로 碑文, 題銘·額板, 造塔, 岩刻 등을 들 수 있다.
- 4) 국가, 유림, 개인 등 단일 주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편찬한 전국적 범위의 地誌類를 비롯한 기행, 일기류, 외국지, 산천지, 주계별 지지, 풍수서 등
- 5) 각 지방에서 자기 고장을 단위로 하여 작성한 지역별 지지로서 全國邑誌, 道誌, 郡縣誌, 村·洞·面誌 등
- 6) 중요 군사시설 지역의 실정을 기술한 자료로서 營誌, 鎭誌, 驛誌, 牧場誌 등
- 7) 인물관련 문헌자료로서 人物考, 族譜, 文集 등
- 8) 한국향토사연구협의회, 향토사의 길잡이, 1996, p.23
- 9) 가옥의 위치와 규모 및 소유관계를 적은 문서.
- 10) 가옥을 사고 팔거나 남에게 넘겨줄 때 文記.
- 11) 건물을 중수·중건하면서 건물의 연혁이나 유래가 자세히 기록된 文記.
- 12) 건물을 조영하는 제반과정의 내용을 기록한 일기.
- 13) 건물을 조영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나 인력·재료를 상세하게 적은 기록.
- 14) 중수·중건에 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록문.
- 15)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화와 옛문서, 1992, pp.87-90.

무엇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자료의 활용 폭이 크게 달라진다. 향촌의 종가나 향교·서원·사우, 재실·루정에 소장되어 있는 건축기록자료들에 대한 꾸준하고 면밀한 조사는 향토건축연구의 성과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3) 상황자료

상황자료는 향토건축 실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문헌적 주변 환경자료로서 3차적 건축자료이다. 이는 자연적 환경자료와 인문적 환경자료로 대별된다.

자연적 환경자료는 향토건축이 세워진 자연지리인 위치와 면적, 주변 지형과 지질, 기후, 자원, 경관 등의 자료로서 향토건축의 입지성을 비롯하여 건축재료, 건축형태, 공간구성 특성을 파악하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인문적 환경자료는 인문지리자료, 역사·인물자료, 생활물질·생물자료¹⁶⁾와 사상·신앙자료, 사회·경제자료 등이 해당된다. 인문지리자료는 건축의 인문지리적 환경에 따른 입지형태, 거주인구, 접근교통, 생업형태 등의 자료로서 향토건축의 정주성, 입지성,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건축역사자료는 향토건축이 직접적으로 성립되어온 연혁과 경영 등으로서 주로 건립 시기나 건립 동기, 건립 주체자, 배향 인물, 건축 장인, 경영인물 등을 파악하는 자료로 제공된다.

생활물질·생물자료¹⁷⁾는 향토생활환경의 필요에 따라 기구를 이용하거나 설치하는 주요 생업용구, 생활가구 등과 생활생물로 기르는 가축, 작물, 자연물 등으로서 향토건축의 공간기능과 공간구성을 파악하는 자료로 제공된다.

사상·신앙·의례자료는 민속신앙·천문사상·풍수사상과 불교·유교 및 상례·제례·상례·혼례·건축의례 자료이다. 특히 향토가 지니는 고유의 洞神信仰¹⁸⁾과 家宅信仰¹⁹⁾, 풍수지리사상, 건축의례 자료는

16)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같은 책, p.178.

17) 민속물질은 민속학분야에서 1980년대 초에 사용한 명칭으로 의식주관련물을 비롯하여 생업관련 기술과 도구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구를 지칭한다.

18) 마을에 수호신 신앙을 만들어 개인과 가족 그리고 마을의 制厄招福을 합동으로 제의하는 공동신앙.

19) 집을 보호하고 길흉화복을 다스린다고 믿는 안택고사, 건축의례 등.

향토건축의 입지와 구성 및 의미 형성의 조사에 유효한 자료로 제공된다.

사회·경제자료는 향촌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관련한 혈연·지연구조, 생산구조, 계층구조, 인구구조 등의 자료로서 향토건축의 입지, 배치, 운용, 기능,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된다. 특히 향촌의 공동체적 구조의 파악은 증가집, 향교건축, 서원건축, 누정건축, 정려건축, 사묘건축의 특징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Ⅲ. 향토건축 자료조사

1. 향토자료 조사기법

향토자료 조사는 일종의 사회·문화자료를 탐구하기 위한 조사로서 사회조사 및 문화조사 방법론에서 다양하게 고려되어온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²⁰⁾.

대개 자료조사법의 적용은 향토문화자료의 종류와 성격, 조사의 목적과 방향 및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토문화조사를 위한 일반적인 자료수집기법의 종류를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이 조사의 계획성, 조사의 과정성, 조사지의 접근성, 조사자의 규모성, 조사자료의 종류, 조사분야의 범위, 조사자료의 선택, 현장자료수집방법, 조사참여도, 자료기록방법, 실측종류, 조사시기, 조사자료분석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자료의 수집 조사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하나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대부분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개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하게 된다. 향토문화 자료조사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조사기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산발조사, 개괄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²¹⁾. 산발조사는 일정한 계획과 목적이 없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이다. 비전문가의 취미적 조사이거나 전문가의 심층적

표 1. 향토문화자료 조사기법

성 격	종 류
조사의 계획성	· 산발조사/개괄조사/정밀조사
조사의 과정성	· 기초조사/예비조사/본조사
	· 문헌조사/현지조사/자료정리
조사지 접근성	· 지표조사/발굴(정밀)조사
	· 직접조사/간접조사
조사자 규모성	· 현장조사/설문조사
	· 단독조사/공동조사
조사자료의 종류	· 문헌조사/비문헌조사
	· 유형자료조사/무형자료조사
	· 물질자료조사/비물질자료조사
조사의 범위	· 종합조사/제한조사
	· 기본조사/중심조사
조사자료의 선택	· 우연조사/설정조사/전체조사
현장자료수집	· 관찰조사/담문조사/면담조사 /실측조사/녹취조사
조사참여도	· 방관조사/참여조사
자료기록방법	· 필기기록/녹화기록/도화기록/ 탁본기록
	· 약실측/정밀실측
실측종류	· 현황정밀/해체정밀
	· 부분실측/전체실측
조사기간	· 단기조사/장기조사
조사자료분석	· 단순분석조사/복합분석조사
	· 영역분석/분류분석/성분분석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성격을 지닌다.

개괄조사는 일정한 계획에 따라 비교적 광범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조사이다. 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을 목적으로 현지의 전문가에 의뢰하여 보고를 받는 조사, 비전문가의 계획과 지도에 따른 비전문가들의 조사,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조사목적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정밀조사는 전문적으로 연구 학자들이 대상을 엄격히 선택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특정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는 조사이다.

다음으로 조사과정적 측면에 의한 조사기법은 보통 기초조사 - 예비조사 - 본조사, 문헌조사 - 현지조사 - 자료정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향토문화 자료조사에서 수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기초조사는 현지조사에 앞서 사전에 수집할 자료의 범위와 성격·연구 동향·주변 사정 등에 대한 기초자

20) 김경동 외, 사회조사연구방법, 박영사, 1988. 이영진 외, 문화관광자원의 이해를 위한 문화재조사 연구입문, 학문사, 2000. 이희봉 역,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8. 나경수 역, 민속조사방법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5.

21) 김택규 외, 촌락실태조사소편람,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1, pp.160-161.

료조사이다. 이때 조사목적과 대상이 결정되며, 관련되고 있는 문헌자료를 조사한다.

예비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이미 선정된 조사대상지역이나 사회적 상황에 들어가 본조사에 필요한 지식을 미리 얻기 위해 대상확인, 현황파악, 기초자료수집, 현지인 청취를 실시한다.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계획된 세부사항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계량화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심층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찰·면담조사, 그리고 건축물 실체자료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하기 위한 실측조사 등이 수행된다.

특히 고고학적 조사가 포함되는 건축문화유적조사의 절차과정은 지표조사 - 발굴조사의 순서를 갖는다. 지표조사는 조사지역 안에 있는 자료를 지표 위에 드러난 상태대로 분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발굴조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조사절차로서 발굴 대상의 유적을 선정하는 기초조사인 셈이다.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를 좀 더 분명히 밝혀보기 위한 것으로, 땅 속에 들어 있는 매장자료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조사 방법에 의한 조사기법은 보통 관찰조사와 면담조사가 이용된다²²⁾. 관찰조사는 눈 또는 체험으로 관찰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며, 비참여 비조직적으로 관찰하는 비참여관찰과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관찰하는 참여관찰법이 있다. 참여관찰법은 민속학이나 문화인류학에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면담조사는 언어적 교신을 통해 대상에 대한 질문과 응답의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면접용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는 질문서법과 설문지 없이 응답자와 대화를 통해 수집하는 심층면접법이 있다. 이밖에 탐문조사는 조사대상의 위치나 장소가 불확실한 경우 현지인의 탐문을 통해 현장에 접근하는 조사이다.

2. 향토건축자료의 조사과정

향토건축자료조사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언제 조사할 것인가에 따른 체계적 접근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개 경험적 조사과정 틀 안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존의 자료조사과정을 좀더 체계적인 학술조사차원의 틀로 제시하고자 한다. 단, 범위는 지표조사 차원의 약실측을 염두한 과정이다.

본 절에서 조사과정은 기본계획단계, 현지조사계획 수립단계, 현지조사작업실행단계, 결과정리단계인 4 단계로 설정하였다.<표 2 참조>

1) 기본계획

기본계획에서는 조사작업의 첫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기획수립과 기초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먼저 기획수립에서는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조사 대상 건축물이 선정되면 조사목표와 조사방향 및 조사범위를 설정하며, 전반적인 조사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검토한다. 기초자료수집에서는 조사 대상 건물(지역)의 기초정보와 현지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관련 기문헌자료와 현지기초자료를 수집한다. 기문헌자료는 기존의 조사보고자료, 문헌자료 등이며, 현지기초자료는 향토 건축물이 입지하는 위치 등의 기초 사항인 지리자료를 비롯하여 지적자료와관리자료로서 위치, 지형, 지적, 대지 및 건물 규모 등의 기초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상의 기본계획단계에서는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파악과 향후 실질적인 현지조사를 위한 논의 자료로 활용한다.

2) 현지조사 계획수립

현지조사계획수립은 조사실행에 따른 조사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현장자료 조사계획수립과 현장작업 운용계획수립으로 구분된다.

현장자료 조사계획수립은 조사실행에서 요구되는 건축물자료, 상황자료, 기록자료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별 조사항목표 혹은 실측야장, 현장작업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기록자료와 상황자료의 조사항목은 중심조사자료에 대한 수집요목을 작성하고 관찰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기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조사수행과정에서 전체적인 지침 역할을 고려하여 순서로 배열한다. 실체자료인 건축물자료의 실측야장은 건축물 실측시 스케치 배경도면에 치수를 기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현장작업 체크리스트는 조사 작업을 정확하고 효

22) 김경동 외(1988), 같은 책, pp. 152-539

표 2. 조사진행체계

단 계		내 용	방 법	작 성
기본계획	기획수립	· 조사대상 향토주택 선정 · 조사 목표·방향·범위 설정	· 조사 방법 검토	· 기본계획서작성
	기초자료 수집	· 문헌자료수집 · 현장기초자료수집	· 조사보고서, 향토지, 고문헌 검토 · 지도·지적도 및 지리정보 검토 · 토지조서, 가옥·토지대장 검토	
현지조사 계획수립		· 현장자료 조사계획수립 · 현장작업 운용계획수립	· 조사자료별 조사항목표, 실측야장, 작업체크리스트 준비 · 조사 장비 및 비품 준비 · 조사팀 구성 및 예비교육 실시 · 안내자, 면담자, 제보자 확보 · 숙식장소 확보	· 조사일정계획서작성
현지조사 작업실행	사전조사	· 현지 제반여건조사 · 팀별 실태조사	· 안내자(제보자) 면담 · 조사팀별 탐문조사 및 사진촬영조사 · 조사장비설치 및 수행 여건 검토 · 접근교통 및 숙박여건 검토	· 현지조사일지작성
	본조사	· 팀별 현지자료수집	· 조사팀별 관찰·탐문·실측조사 수행 · 조사항목표 및 실측야장 작성	
결과정리		· 조사결과 자료정리 및 도면작성	· 실측조사자료 도면작업 · 조사내용 정리	· 조사결과보고서작성

울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점검목록표로서 전체 작업체크리스트, 실측야장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한다.

현장작업 운용계획수립은 조사인력, 조사예산, 조사장비 등 현장자료 조사작업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조사인력과 조사장비는 수행 작업분야별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요 장소와 시간에 따라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업 순서를 편성한다. 조사팀은 기록·상황자료 조사팀, 건축실측팀, 대지측량팀으로 구성한다. 특정한 인물이나 행사 및 시기와 관련하여 조사가 요구될 경우 별도의 일정계획을 세워 수행한다.

조사보조자에게 전체적인 조사의 목적과 취지, 조사과정에 따른 조사방법, 조사항목표 작성과 관리, 실측방법, 실측야장 작성과 관리, 조사장비 사용 및 관리, 현장관리, 안전문제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조사실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교통, 코스, 동반 전문가, 숙박지, 기상여건 등을 살펴며 조사일정계획을 작성한다.

이상의 과정에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해당 행정관청 혹은 관리자(소유자)의 협조를 구하며, 현지 사정에 정통한 향토학자나 현지 안내자와 제보자 및 면담자 등을 미리 확보한다.

3) 현지조사 작업실행

현지조사실행단계는 현지 제보자(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사전조사와 본조사를 수반한다. 먼저 사전조사에서는 본조사 과정에 필요한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 여건과 제반 조사자료의 상태를 탐색 확인하고,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개괄적 조사작업과정이다.

따라서 각 자료의 명칭, 위치, 보존 등을 확인 점검하고 추가 자료를 녹취 기록하며 본조사 수행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나 기록 자료나 건축물 자료의 보존상태에 변화가 많거나 조사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현지조사계획수립에서 짜놓은 조사일정계획 및 조사팀을 재조정한다. 미리 인지경계선 파악이 요구될 경우, 이 단계에서 측량팀을 투입하거나 지적공사를 통한 경계측량성과물을 미리 확보하여 효율적인 본조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본조사는 사전조사에서 탐색한 여러 자료를 토대로 현 상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현장에서 관찰조사와 실측조사하는 작업과정이다. 따라서 상황자료·기록 자료 조사팀은 조사항목표에 따라 상황자료와 기록물자료에 대한 자료수집작업과 영상 녹취작업을 실시한다. 한편 대지실측팀은 조사 건축물의 대지 및 건축물의 경계와 위치를 현황측량함으로써 배치현황

을 조사한다. 건축실측팀은 건물내·외부를 실측야장에 측량·측정(탁본, 문양모사)작업과 영상녹취작업을 병행한다.

현지조사과정에서는 조사수행에 따른 작업상황과 문제점 및 다음날 작업계획을 매일 논의하고, 팀별 현지작업일지를 작성한다.

4) 조사정리단계

조사정리단계에서는 조사실행단계에서 얻은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마무리 과정이다. 본조사에서 각 조사팀이 수행한 상황자료, 기록자료, 실체자료 각각에 대한 내용을 조사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분석 정리하며 실측결과물인 스케치, 사진, 녹음, 탁본 등의 실측야장도 일목요연하게 도면기록으로 정리한다. 정리과정에서 현지조사결과 누락사항은 보완 조사를 실시하며 기존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변화사항을 검토한다. 보완조사까지 완료되어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결과조사보고서를 만든다.

이상의 향토건축자료 조사과정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건, 인적 조건, 재정적 조건, 기술적 조건, 법률적 조건 등 관련 조건이 적절히 충족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조사자의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

3. 향토건축의 자료수집

향토건축의 자료수집은 이미 확보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수집항목을 만들고 다양한 수집기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료의 성격에 따라 효율적인 조사 방법으로 접근해야 함이 필요하다. 자료조사를 위해 모든 관련자료를 정밀하게 조사할수록 조사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조사목적과 조사조건 및 조사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해당되는 모든자료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토건축의 종류에 따른 중심자료의 항목과 정밀성을 미리 설정한 후 조사에 임한다.<표 3 참조>

따라서 본 절에서는 향토건축자료수집이 중심자료의 따라 다양하므로 모두 열거하기 힘든 바, 事例로서 향토주택조사에 초점을 두고 지표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현지자료수집기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향토주택자료의 수집내용은 조사자사항 및 조사자료 일반사항을 비롯하여 건축실체자료, 기록자료, 상황자료의 중심자료사항으로 구분한다.<표 4 참조>

표 3. 향토건축 종류별 중심조사자료

종 류	주택	서원	정자	정려	사당	서낭당	모정
실체 자료	건축물	○	○	○	○	○	○
	부지물	○	○	○	○		
기록 자료	문헌물	○	○	○	○		
	도화물	○	○		○		
	금식물	○	○	○	○	○	○
상황 자료	촌락구조	○	○	○		○	○
	문중구조	○	○	○	○		
	가족구조	○			○	○	
	지형지리	○	○	○	○	○	○
	풍수지리	○	○			○	
	경관지리	○	○	○			○
	생활기구	○	○				
	생업용구	○					
	생활생물	○					
	건축의례	○	○	○	○	○	○
	건축신앙	○		○			○
건축사상		○	○	○	○		

우선 조사자 사항수집은 조사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사기록의 증거를 위해 조사인명, 조사일시 등이 공통적으로 수집된다. 그리고 향토주택 실체자료 일반사항은 주택소유형태, 주택관리형태 등이 수집되며, 향토주택 기록자료 일반사항은 기록물 소장형태, 기록형태 등이 수집된다.

한편, 향토주택 실체자료에서 중심사항수집은 건물 배치사항과 건물부재사항을 수집한다. 특히 건물부재사항은 평면부재, 입면부재, 단면부재, 건축장식물 등을 실측하여 수집한다. 기록자료에서 중심수집은 조영기록사항, 생활기록사항, 촌락기록사항을 중심으로 건립과 보수, 유지 및 멸실에 따른 주체, 시기, 동기, 인물 기록 등을 수집한다. 상황자료에서 중심수집사항은 향토주택의 건립·경영상황, 주변의 자연지리상황과 인문지리상황, 향촌사회상황, 생활물질·생물상황, 건축의례·신앙상황 등을 대부분 건립배경과 주변환경 및 생활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물질상황자료의 경우 형태, 기능, 규모, 장소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며, 비물질상황자료의 경우 장소, 역할, 관계 구조, 의미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상의 자료수집은 관찰조사 및 면담조사에 의해 수행되거나 탁본, 측량, 사진, 원문정서, 비디오 등을

표 4. 향토주택의 현장자료수집

종류	수집 항목		수집방법
건물 자료	기본자료	조사인명 조사일시, 건물명, 당호, 건립연대, 소유자(관리자), 소재지번, 소유(관리)형태, 건축면적, 대지면적, 보존상태	· 관찰, 탐문, 실측 · 탁본, 스케치, 사진, 비디오
	배치자료	위치, 고저, 향, 경관, 도로관계 등	
	부재자료	크기, 형상, 기능, 구법, 재료, 부재상태 등	
기록 자료	기본자료	조사자, 조사일시, 소장자, 소장처, 제명, 저자, 기록연대 등	· 관찰, 탐문 · 사진, 복사, 원문정서
	건립기록자료 생활기록자료	건립시기, 건립자, 건립규모, 건축형상, 개보수 등	
상황 자료	기본자료	조사자, 조사일시 등	· 관찰, 탐문 · 도면, 사진, 비디오,
	건립·경영자료	건립시기, 건립자, 건축장인, 배향인물, 경영상태 등	
	지형·풍수·경관자료	종류, 명칭, 위치, 고도, 거리, 형상, 의미 등	
	생업·입지자료	종류, 규모, 위치 등	
	물질·생물자료	종류, 역할, 기능, 형태, 배치 등	
	의례·신앙자료	종류, 대상, 장소, 의미 등	
가족사회자료	종류, 역할, 구성 등		

이용한 실측조사 수집이 수행된다. 또한 특별한 기록, 재료, 구법, 양식 등의 자료수집에는 관련 장인,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4. 실측조사와 기록정리

향토건축자료조사에서 자료를 실측하고 기록으로 보존하는 일은 매우 비중있는 작업이다.

실측조사에 따른 결과물은 실체자료의 형태와 구성 및 관련 상황자료를 기록 보존함으로써 향토건축의 사용척도, 공간구성, 건축법식, 건축양식, 보존상태 등 향토특성을 파악하거나, 향후 복원과 실증에 필요한 건축기록자료를 형성하기 때문이다²³⁾.

건축물의 실측방법에는 정밀여부에 따라 비교적 간단하게 기본적인 부분의 치수만을 측정하는 약실측과 상세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측정하는 정밀실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기본현황조사를 위한 것이라면 현황정밀조사나 해체정밀조사를 위한 것이다. 약실측일 경우에도 평면 등 일부분 도면만을 실측하는 부분실측과 대상의 모든 면을 실측하는 전체실측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직접 실측도구로 측정하여 작도하는 방법과 격자로 정밀히 구획하고 각 구획 부분을 측정하거나 모자이크 작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는 보다 규모가 크고 정밀한 실측에 적

용된다.

실측작업에는 실측야장에 실측결과치를 기록하게 되는데, 실측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대략 그려놓고 그 위에 실측치를 기록하는 스케치 배경도면이 필요하다. 혹은 표준화된 실측용 야장과 조사기록카드가 필요하다

한편 실측작업에는 측량과 측정을 위한 작업도구들²⁴⁾이 각 실측방법에 맞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부지 실측에는 측량도구(줄자, 캘리퍼스, 평판기, 트랜짓, 광파기) 등으로 측량하며, 건축실측에는 상세한 건축의장부재나, 장식부재를 실측하기 위한 기본도구로서 측량도구, 탁본도구, 영상도구가 필요하다. 보통 도면기록으로 정리되나, 기록의 시각적 보존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진기, 비디오 등 녹취도구들이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의 사진실측에 의한 실측작업이 수행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실측 방법으로 현재 측정용카메라실측과 비측정용카메라실측이 이용되고 있다²⁵⁾.

특히 매장되었거나 실측이 힘든 유물자료는 특별한 과학기재를 이용한 측정법이 필요하다. 또한 전

23) 김봉건, 실측조사와 건축역사 연구, 건축사연구 통권 2호, 1992.

24) 문구류(색펜, 스카치테이프, 트레이지, 가위, 메모지) 실, 망치, 못, 추, 물수평, 지도, 나침반, 스케일, 콤파스, 촬영기기(카메라, 비디오), 측량기구류(가, 철척, 캘리퍼스, 평판기, 레벨, 트랜짓, 광파기), 탁본도구(한지, 먹), 녹음기, 스케일, 계산기 등.

25) 전라북도(2001), 미륵사석탑, 미륵사지유물전시관 학술총서 제1책, pp.221-229를 참조.

표 5. 실측 및 기록 정리

구분	내 용	주도구
평면 실측	· 초석·기둥·수장재·마루의 폭·두께·재 료·상태, 실의 명칭·기능·규모 ·생활 가구·용구·생물의 크기.	줄자 캘리퍼스 사진기
입면 실측	· 주칸크기, 기단·초석·기둥·수장재의 크 기·재료·상태, 추녀높이·양곡, 기단석 종류·마감, 지붕마루곡, 지붕별 모양·크기 ·장식물의 형태·크기·기능, 추녀높이의 안허리곡	줄자 캘리퍼스 레벨 광선수평기 탁본도구 사진기
단면 실측	· 부재의 크기·모양·상태, 지붕높이 ·장식물의 형태, 크기	줄자 캘리퍼스 탁본도구 사진기
배치 실측	· 건물·경계물·도로·자연물의 위치·크 기·거리·고저차 ·자연물·외부생활시설물의 종류·기능·형 태·구성·규모	줄자 트랜짓 광파기 사진기

문적 실측 요령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상의한다.

그러나 실측기록은 건축물을 해체하여 측량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오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목조건축물의 경우는 구조적 변화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약실측작업과정을 살펴보면 통상 기준선설치-단위부재개략실측-기록정리작업이라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기준선은 실측의 모든 기준으로서 각도, 평행정도가 정확히 유지되게 설치한다. 어느 방향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전면 귀기둥에서 수평평행이동한 곳에 수평기준선과 전면 기단의 기준높이로 수직평행이동한 곳에 수직기준선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길이와 높이를 실측한다.

단위부재실측은 각 부위의 부재 모양, 크기(폭, 길이, 높이, 두께), 맞춤·이음, 곡률, 기울기, 내밀기, 재료, 간격, 마감을 측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단위부재실측작업은 건축의장과 건축구조 및 건축배치의 기록을 염두한 작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측작업의 기록정리는 기본적으로 평면실측도, 입면실측도, 단면실측도, 배치실측도로 정리한다.<표 5 참조>

기록정리작업은 스케치 배경도면을 제도규칙에 맞게 도면화하는 작업으로 기본사항은 조사자·실측자·기록자, 조사일·실측일·기록일 등을 기록하며, 키플랜을 적절히 사용하여 위치, 수치, 기록 방법을

표기한다.

평면실측기록은 기둥·초석·수장 등으로 표시되는 형태요소 및 공간요소의 종류, 위치, 기능, 재료, 크기, 형태, 구성을 평면도에 표시한다. 필요시 공간 변용과 부재 변화, 생활가구·생활수장물·생활생물의 형태, 크기, 위치 등을 부가사항으로 기록한다.

입면실측기록은 건축외관의장을 이루는 기단부, 축부, 창호부, 처마부, 지붕부에 대한 종류, 재료, 모양, 크기를 입면도에 표시한다. 입면 장식물과 부재 변화 상태, 추녀의 안허리곡 등을 부가사항으로 기록한다.

단면실측기록은 건축구조를 이루는 기단, 기둥, 가구, 지붕 등 각 구조부재에 대한 종류, 재료, 크기, 모양, 상태 등을 중단면도와 횡단면도에 표시한다.

배치실측기록은 건물(체)를 비롯하여 부지경계물 및 진입도등으로 표시되는 거리, 형태, 구성 및 규모 등을 배치도에 기록한다. 필요시 자연물·생활시설물·경관시설·장식물의 종류, 기능, 형태, 구성 및 규모 등을 부가사항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약실측의 기록정리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외에도 앙시도, 상세도, 구조도, 복원도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건축제도규칙에 따라 표현함이 일반적이다. 생활물, 장식물, 자연물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은 향토건축의 사실적 현장감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실측조사와 기록정리는 조사 방법과 수준에 맞도록 사안별 기록 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추후 관리 및 개보수에 용이한 기록도면이 되도록 마무리하며, 도면 자체가 역사적 실증자료가 되도록 보전한다.

IV. 결 론

향토건축자료의 문화적 가치를 재음미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향토건축자료의 조사 발굴 수집과 기록 정리는 한국전통 건축문화의 지방성 탐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토건축 자료조사 방법론의 기초적 접근으로서 향토건축자료의 개체적 분류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고, 건축학술지표조사 수준에서 요구되는 향토건축의 조사체계와 조사·수집·기록

기법들을 고찰하였다.

향토건축 자료조사를 위한 조사방법은 조사 범위적 측면과 조사 기법적 측면 및 조사 운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향토건축 자료조사는 조사목적과 조사방향에 따른 합리적인 조사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조사대상 건축의 향토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료조사의 진행 방법으로 기본계획단계, 현지조사 수립단계, 현지조사수행단계, 조사정리단계라는 4단계의 절차 과정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지조사의 효율적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조사계획과 작업운용계획을 면밀히 세워 수행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조사요목에 따른 수집·기록방법을 미리 검토한다.

이상의 고찰은 지방 건축 연구에 대한 향토문화조사에 있어서 건축 중심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서, 향토건축에 대한 모든 조사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향후 보다 세부적인 목적과 조건이 고려되는 조사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1. 고승제(1983), 한국촌락사회사 연구, 일지사.
2. 국립민속박물관(1988), 구례운조루.
3. 국립민속박물관(1992), 생활문화와 옛문서.
4. 김경동 외(1988), 사회조사연구방법, 박영사.
5. 김봉건(1992), 실측조사와 건축역사 연구, 건축사연구 통권 2호.
6. 한국건축역사학회(2001), 전통건축역사연구의 방법과 문제, 한국건축역사학회창립10주년 학술발표대회자료집.
7. 김정호 외(1992), 향토사 이론과 실제, 향토문화진흥원 출판부.
8. 리처드 M. 도슨 편저, 나경수 역(1996), 민속조사방법론, 전남대학출판부.
9. 미륵사지유물전시관(2001), 미륵사탑.
10. 이영진 외(2000), 문화관광자원의 이해를 위한 문화재조사연구입문, 학문사.
11. 이혜준 외(1994),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 한국정신문화원.
12.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1990), 촌락실태조사소편람.
13.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1996), 향토사의 길잡이, 수서원.
14. 향토문화개발협의회(1993), 문화유적조사편람(유형).
15. 문화재보수기술강좌(2003), 한국문화재기술자협회.
16. Amos Rapoport(1969),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 J..
17. James P. Spradly저, 이희봉 역(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법.